

**MC :** 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시사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제 4부인데요 인천의정중계탑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정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한구 시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의 지역구는 계양 제4선거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MC :** 네 반갑습니다. 계양 제4선거구면 어디인가요?

**의원 :** 예 계양1동과 2동 농촌지역과 계산택지로 알려진 계산4동 지역입니다.

**MC :** 도농 복합지역이네요.

**의원 :** 네 가장 넓습니다.

**MC :** 그렇군요. 자 후반기에 산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부위원장이 간사역할도 함께 하는 건가요?

**의원 :** 예, 우리 인천시의회가 간사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전국의 지방의회들은 이미 부위원장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 부재 시 권한대행을 한다든가 또 의원들 간 의회운영, 상임위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조정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인천시의회도 늦었지만 다른 지방의회와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MC :** 하반기부터 직제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원 :** 네 요번 임시의회에서 바뀌었습니다.

**MC :**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제203회 2차 본회의 였었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송도 국제병원 관련해서 중요한 제안을 하셨던데 비영리 국제병원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은 그런 것 이었죠?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소개를 좀더 자세히 해주시죠.

**의원 :** 예, 그동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영리와 비영리 논란들이 많

이 증폭되었고요, 인천 지역사회의 많은 갈등 요인이었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영리 추진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실제로는 비영리 병원으로 추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의료연구라든가 의료발전 이것을 통한 의료 허브 구축인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이익이 났을때 이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분해주는 영리병원으로는

**MC :** 그게 영리병원이죠.

**의원 :** 그것은 의료허브를 구축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익이 나더라도, 의료연구라든가 발전에 재투입하는 비영리 의료법인만이 의료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MC :**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다. 비영리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

**의원 :** 국제병원은 이미 필요한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고 외국인들이 점점 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의료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건데 문제는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MC :** 인천시의 구상은 의료허브 구축인데 .....

**의원 :** 그렇죠.

**MC :** 그것을 이뤄갈려면 영리병원으로서는 안되고

**의원 :** 당연하죠.

**MC :** 비영리병원이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말이죠. 요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의원 :** 예, 시의 관련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담당자들이나 시장님으로 부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MC :** 그렇군요. 자 이게 사실은 영리병원 설립, 요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었는데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으로 추진해야 해외의 의료법인이 송도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 :** 예, 외국인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 하고 실질적인 선진적인 외국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도입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가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발달된 의

료기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와서 국내의 의료기관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국제적인 의료 허브로서 구축되는 거지, 외국인들 투자 돈 얼마 받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ですよ.

**MC :** 그럼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설립이 어려운게 아니에요.

**의원 :** 네, 예를 들면 비영리국제병원에 대한 진척, 비공개로 상당기간 논의를 해오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미 세계 최고의 의료연구 분야, 의료교육 분야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하버대병원이 이미, 우리 서울대 병원측과 협업을 통해서 비영리 국제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구요.

**MC :** 송도에 ?

**의원 :** 그렇죠 그리고

**MC :** 다시 한번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 하버드대가 서울대와 공동으로 송도에 비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구요?

**의원 :** 그렇죠. 밝힌 정도가 아니고 이부분에 확인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미 봄에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병원 최고 책임자도 만났고, 또 하버대병원에 최고책임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미 지난봄에 유력일간지에 하버드대병원의 길버트 머지 국제부분 총괄사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MC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왜 인천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의원 :** 사실은 영리병원들을 끊임없이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미 정부, 지경부안에도 있는 거구요. 어떻게 하든 영리병원을 깃발을 쏘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경부가 국제병원 건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관한 승인이나 권한들을 갖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영리 국제병원이 우리 송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목적 중에 하나인 의료허브 구축에 최적이지만, 문제는 나머지 사업들에서 지경부가 자꾸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행보를 좀 기했다 하면 될 겁니다.

**MC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그러면 하버드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왔습니까?

**의원 :** 예, 하버드대병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 최대의 의료연구 분야의 이런 병

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대륙별로 의료 허브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아시아 의료 허브 구축하는 부분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한거죠.

**MC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의원 :** 그렇죠. 더군다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기술, 직접적 치료기술이 사실은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가 결합한다 면은 세계 최고의 의료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구체적인 협업을 통한 운영방법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 졌구요, 투자부분에서는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6천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에 3천억원과 또 하나는 의료장비는 일반적으로 리스를 통해서 구입하죠.

**MC :** 빌리죠.

**의원 :** 2천억원입니다. 5천억원은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똑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MC :** 누가 대는 겁니까? 돈을?

**의원 :** 아니 2천억원은 의료장비 리스, 3천억원은 토지비와 건축비인데 이 부분은 인천시가 영리병원에 해주기로 한 방식이 있죠. 3년 동안 유예하고 다시 조정원가의

**MC :** 여기까지는 같네요. 6천억원중에 5천억원은.

**의원 :** 그렇죠. 나머지 천억원인데 영리병원은 이 천억원을 외국인투자가 포함된 이런데서 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거였고, 일본 다예와증권이라든가. 비영일법인은 서울대병원 측이 서울대병원의 기존에 있는 자금과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협력하는 국내의 대기업,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신성장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이러한 분야에 펀드로 제공해주는 국가의 중요한 펀드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바로 여기에서 펀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MC :** 그럼 서울대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원 :** 그렇죠.

**MC :**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어차피 서울대병원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펀드를 말씀하셨는데 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가요?

**의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이 수입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 2천명이 안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 상대로 해서 천병상정도의 병원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MC :** 하하하 불가능하죠.

**의원 :** 영리병원일 경우에는 바로 외국의 병원의 의사들을 일정부분 와서 고용을 해야 하는데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MC :** 1년에?

**의원 :** 예, 그런 급여로만, 정주비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천병상중에 700병상은 내국인 300병상은 외국인 전용, 동시에 내국인도 받는 건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지금 보시면 진짜 위중한 병이나 이럴 경우에 다 어디 가나요? 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가거든요.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의료수준 향상, 이부분에도 사실은 꼭 필요한 시스템인거죠

**MC :** 자 그럼 궁금한 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 :** 비영리법인은 일체 법인 외에 유출 못하게 되어있죠. 바로 연구하고 재투자하는데 전액 투입되는 것입니다.

**MC :** 그게 바로 의료허브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원 :** 그렇죠. 서울대와 하버드대 협업한 국제병원은 바로 그러한 의료연구와 교육과 이 부분에 재투자하고 주위에 연관된 많은 의료연계산업들이 이부분하고 연계해서 임상이나, 이걸 높여 가면 되는 겁니다.

**MC :** 자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송도 국제병원, 영리냐 비영리냐 논란 끝이 날것 같은데요.

**의원 :** 끝이 나야 되죠.

**MC :** 곧 끝날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의원 :** 잘 알고 있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지막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식경제부죠.

**MC :**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의원 :** 현재 송도의 국제병원부지가 외국인 투자를 전제로 해서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상. 이런 논리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사실은 좀 벗어나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도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나 ITBT, AT, MT 이러한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들을 제대로 하기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제병원으로 비영리라도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죠

**MC :**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결심만 바꾸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원 :** 그렇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상에 상급병원은 외국인 병상을 5%까지 밖에 못하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부분도 우리 시 관계자가 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적극적인 협조, 이 부분들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MC :** 자 그러면 최종결정, 그 뭘니까? 지식경제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 그것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나누다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송도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의원 :**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보다 국제병원을 하나, 안하나로 부각이 되었는데 사실 국제병원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인천에 와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또 인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의료 허브 구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국제병원을 위해서 인천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병원이 필요하다고 한 의료기술, 의료허브 구축은 비영리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최고의 의료기관 하버드대 병원이나 서울대병원도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바로 이제는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지식경제부가 조속히 비영리 국제병원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MC :** 자 송도 국제병원 뭐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을거예요. 의원님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 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의원 :** 네, 감사합니다.

**MC :** 고맙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한구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